

'Young-Buddha' 함께 한 환희의 축제마당

형형색색의 연등 10만개가 서울거리를 수놓았다. '청춘과 소통'을 주제로 열린 연등회에서는 인종, 나이, 성별, 국적을 떠나 모든 이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어울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7일 불기2560년 연등회를 개최했다.

연등회에서 불자들은 한뼘한뼘 소중히 만든 연등과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불자들이 1년 넘게 공을 들여 만든 장엄등은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환희심을 고취시켰다. 이날의 환희를 화보 통해 전한다.

특별취재팀



제등행렬에 참여한 불자들은 시민들에게 연등만큼이나 환한 미소를 보였다. 동국대에서의 어울림 마당을 시작으로 동대문운동장, 종로, 조계사 앞까지 연등회가 펼쳐졌다.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서 참가대중들이 음악에 맞춰 단체울동을 하고 있다.



어울림마당에는 아이들도 참여해 울동을 선보였다.



불교계 주요종단 대표 스님들과 참석 내외귀빈들의 행진 모습.



연등회에서는 비천상, 사천왕상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장엄등이 인기를 끌었다.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불기 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미래100년 총본산성역화 조계사 사부대중이 함께 합니다.

